| 현불 논단 |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충청 예찬

충청도민으로 살아온 지 30여 년
충청 출신은 아니지만 애정은 커
독특한 특징중의 하나가 '느긋함'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짜증'대신 특별한 지혜로 대응해
변할수 있음을 알고 순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주 의식도 발달해
지역 감정 · 군중심리 영향 적어
충청 민심이 선거분수령인 이유

충청도민으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을 훌쩍 지나고 있다. 이곳 출생이 아니라 본토 충청도 사람은 못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덕사 스님' 또는 '부석사 스님'으로 부르니 '충청도 스님'으로는 분명하게 인정을 받는 것 같다.

어느 지방이든지 그 지방의 독특한 지방색들이 있기 마련이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지방색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 지방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충청도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급할 것도 바쁠 것도 없는 '느긋함'일 것이다. 사람 사는 일에 충청도라고 바쁘고 급한 일이 없을까 만은, 여기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바쁘거나 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몸도 마음도 차분하고 느긋하다. 어떨 때는 얄미울 정도다. 상황이 급해서 좀 빨리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단체로 인도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거의 매일매일 한국의 시스템과 너무나 다른 '인도의 현실'을 접하게 된다. 기본적인 생활의 불편함을 비롯하여 가는 곳 마다 접하게 되는 '기다림'과 '답답함', '황당함'을 겪게 되면서 '성지순례의 기쁨'과 더불어 짜증과 분노를 억누르고 다스리는 '마음수행'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유독 충청도 사람들은 인도 특유의 기다림과 답답함, 황당함으로 고통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저 '그러려니~' 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다. 옛날부터 수행자들의 걸음을 '우보(牛步)'나 '호보(虎步)'라고 하였는데, 소걸음이나 호랑이 걸음처럼 느리고 여유로운 걸음을 말한다. 충청도 사람들의 느린 걸음과 그 마음도 우보와 호보에 비교 할만하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이 되어가기를 기대한다. 만약 계획한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불평불만과 짜증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주지를 10여 년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처음 계획과 같이 진행되지 않았다. 일하면서 가장 많이들은 말이 "손바닥만하게 하려면 방석만하게 되유~"이다. 일은 늘 변하고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모양도 변하고 시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많아진다. 일이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 줄 알고 일을 하니 불만도 짜증도 이겨낼 수 있었다.

충청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충청도는 민주주의 의식이 무척이나 발달한 곳이다. 여러 번 선거를 해봤지만 여기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도 정치적 견해를 잘 공유하지 않는다. 가족끼리도 투표에 대한 말이 나오면 "내 표는 내가 알아서 찍을 테니까 자네 표나 잘 찍게"라고 말하곤 한다.

경험으로 보건대 이곳 사람들도 동정표를 주거나 여러 가지 인연에 따른 투표를 하곤 한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되거나 무능한 정치인이라고 규정된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지역감정으로 군중심리로 정치판이 요동을 쳐도 이곳 사람들은 그런 영향이 적은 것 같다. 각종 선거 때마다 충청의 민심이 분수령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때로 사람들이 '충청도핫바지'라고 비아냥거려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별로 마음에 둘 일이 아니다. 스스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주인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남의 말에 흔들릴 까닭이 없는 것이다.

社 說

희망 · 치유로 봉축 맞이하자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하나하나 시작되고 있다.

봉축 주간의 공식적 시작은 4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시작된 봉축점등식이다. 올해 서울광장을 장엄한 봉축등은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재현됐다. '미륵사지탑 등(燈)'은 좌대를 포함하여 높이가 18m에 이르며 미륵사지탑의 70% 크기에 회화적인 면을 더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반목과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많은 불자들이 군인과 경찰의 총칼에 희생되고 있다.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점등사에서 "오랜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오며 심신에 커다란 무게를 견딘 사부대중 마음에 환희로운 자비의 꽃이 피기를 바란다", "미얀마에 하루빨리 따스한 봄이 오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은 '희망'이라는 서원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담은 등을 밝힘으로써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정됐다고 한다.

서울광장과 전국 곳곳에 희망의 등이 불을 밝혔다. 이 등불들은 한달 동안 한반도를 밝힐 것이다. 누군가는 등불들을 보며 희망을 갖고, 누군가는 치유를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미증유의 시간을 넘어가보자.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에 부쳐

불교적 신념을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불교리더스포럼'으로 뭉쳤다. 불교리더스포럼은 2012년 발족한 불교지도자네트워크 '불교포럼'의 연장선이다. 이번에 위촉된 각분야 전문가들은 불교리더스포럼 5기로 활동하게 된다.

불교리더스포럼은 기존 불교포럼의 발전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교포럼이 전문가그룹의 네트워크 수준이었다면, 불교리더스포럼은 15개 전문분야별 인재들이 분과를 구성해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서울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도 변화다.

불교리더스포럼은 15개 분과별 전문가 그룹 500여명 외에도 지역포럼을 새롭게 개설해,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불교지도자를 발굴해 5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불교는 이웃종교에 비해 종교적 자산인 인재 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불교지도자네트워크는 불자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분야에 대한 종단적 관심사를 확장시키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불교리더스포럼 5기 출범이 불교 인재 활용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불교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불교 발전과 대사회적 역할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신심 증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조직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리더스포럼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신심 증장과 역량 확장은 물론, 나아가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부처님오신날 법당 풍경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님오신날 강당 행사를 중단하고 직원들을 위한 떡과 음료수 나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를 앞두고 준비를 위한 회의를 위해 몇몇 병원 봉사자들을 사찰에서 만나게 되었다. 봉사자들은 서로 반가워하며 지난 부처님오신날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진 후 처음 몇 달은 마스크 품절로 인해, 병원 의료진들도 마스크 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 불자들과 힘을 모아 마스크를 모아 병원에 기부했던 일을 얘기하며 봉사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아휴 그때 마스크 몇 개 가지고 스님을 만났잖아! 그때는 마스크가 너무 귀했지."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먼 옛날 얘기처럼 느껴져 감회가 새로웠다. 한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병원에 힘이 되고자 하던 불자들의 마음이 병원관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2018년 연등설치 불허로 빚어졌던 갈등의 골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었다. 위기가 기회였던 순간이었다.

"우리 법당에서 마스크 기부하고 부처님오신날 떡나눔 할 때 말이야. 생각나?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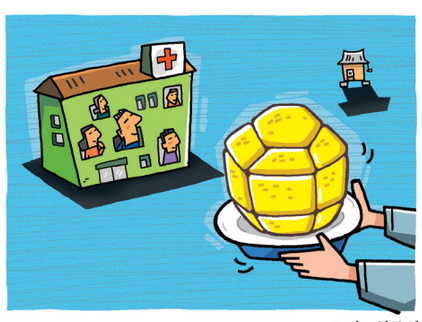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고 직원들이 좋아하던 모습 말이야." "스님 이번에도 꼭 계셔야 해요." 노보살님들은 몇 번을 스님이 계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고개를 끄떡였다. 병원직원들의 점심시간인 11시부터 2시까지 병원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에게 노보살들은 떡과 음료를 정성스레 나누며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허리숙여 인사하며 용기를 주었다. 직원들은 봉사자들의 인사에 당황하면서도 자신들의 할머니를 만나는 듯 환한 미소로 떡과 음료를 받아갔다. 노보살님들은 거의 서너 시간을 힘든 줄도 모르고 떡나눔을 하였고, 행사가 끝난 뒤 다리를 절며 허리를 두드리며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팀장은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팔을 걷어 부친다. "작년에는 떡이 모자랐어." "떡을 받아가지 못하는 직원이 나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아휴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이번에는 5말을 더해서 30말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는 플래카드를 좀 부쳐요." 한 봉사자의 말에 모두 맞다고 고개를 끄떡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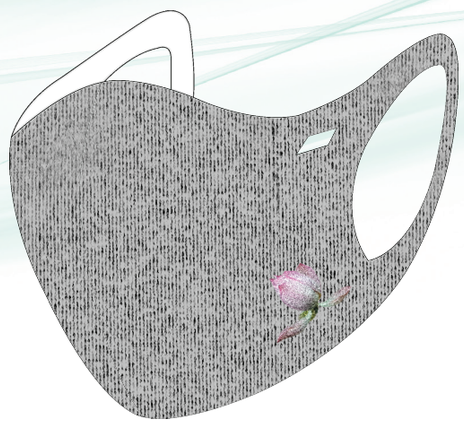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떡나눔행사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우리 병원 고생하시는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병원불교법당 스님과 봉사자들 마음모음-

뚝딱 플래카드 하나 만들고 봉사자들은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이다. 우리 병원법당 봉사자들의 마음은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 듯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기능성 마스크"로 준비하세요. 보시용으로도 좋습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Antibacterial 항균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